

부산지역 해양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배* · † 정우리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전임연구원

A Study on the Status and Revitalization of Ocean Education in Busan

Serng-Bae Moon* · † Woo-Lee Jeong

* Professor of Navigation System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Industry,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국가이며, 특히, 부산은 세계 3위의 최대 컨테이너 항만시설과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해양도시이다. 하지만 부산시민의 해양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획일화, 해양교육 체계 미비,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미흡, 해양교육 실시 전문 인력 부족, 해양교육 실시기관간의 연계부족 등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양교육모듈을 개발하고 교육모듈을 하나의 주제에 맞게 편성하는 해양교육코스를 설계, 이러한 교육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해양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교육을 내실 있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해양도시로 명성을 이어가고 건전한 친수문화의 조성과 해양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해양교육, 해양교육모듈, 해양교육코스, 해양교육센터, 학교교육, 사회교육

Abstract : Korea is the 5th Maritime Power in the world, especially, Busan Metropolitan City is the 3rd Marine City, which has the largest Container port facility and logistic system in the world. However, Busan Citizen's maritime consciousness does not reach that level.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which are insufficiency of linkage among maritime education institutes, uniformity of ocean education programs, incomplete ocean education system, inadequate management of ocean education programs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instructor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ocean education modules, establish the ocean education course and put into formal education course to maximize the education effectiveness. This 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putation as a Marine City Busan, construction the hydrophil culture and propagation of ocean culture.

Key words : Ocean education, Ocean education module, Ocean education course, Ocean education center, 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

1.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며, 세계 5위의 해운국가로 발돋움하였지만 국민들이 바다를 동경하고,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바다를 개척하고자 하는 해양의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지역은 해양산업의 전초기지이자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항만시설과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양산업 발전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부산의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해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2000)는 해양입국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해양산업의 발달과 과학화,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는 수·해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200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학교교육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교육은 해양 그 자체가 학습내용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해양이 타 교과학습의 소재로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교육의 내용요소를 해양관련 기본지식교육, 인성교육, 영역교육, 경제교육, 자원교육, 환경교육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으며, 해양교육이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해양관련 학습소재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특히 지리교육과정에서 해양교육을 다루는 것이 해양을 따로 교육하는 것보다 균형 있는 방향이라고 제

* 대표저자 : 종신회원, msbae@hhu.ac.kr 051)410-4280

† 교신저자 : 종신회원, wooryj@hhu.ac.kr 051)410-4255

(주) 이 논문은 “부산지역 해양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2012년도 공동학술대회 한국항해항만학회논문집(2012.6.21-23, pp.125-126)”에 발표되었음.

안하였다. 김 외(2010)는 해양교육을 정규 해양교육과 사회 해양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정규 해양교육으로는 해양교육시범 학교와 일반기관의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양교육 시범 학교와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해양교육의 필요성, 해양교육의 선호 분야, 해양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실천의지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해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해양교육의 실천 방안, 교육방법 및 내용, 운영시스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124개를 식별하여 해양교육의 분야, 방식, 교육시기, 교육대상으로 나누어 부산지역의 해양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현황

2.1 부산지역 해양교육 여건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신 실크로드가 열리는 동북아시아에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춘 대한민국 최대무역항이며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을 보유하고 있다. 13개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20여척의 페리선과 7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12척의 국제 여객선이 있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며, 6개의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요트경기장이 있는 수상레저의 중심도시이다. 또한 어선 총 6,920척, 어업가구 수 5,082세대가 부산관할의 직접적인 바다가족으로 연중 어획고는 43만 2,700톤으로 우리나라 소비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30대 선사를 포함해 140여개 선사의 기항지로 연간 2만 7,850여척의 외항선이 출입하는 세계수준의 항만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 (www.portbusan.go.kr).

2.2 기관별 해양교육 프로그램 현황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 유무형자원의 가치, 국제적 위상을 이용한 해양교육이 산·학·연·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Table 1. 2011 Institutional Maritime Education Programs in Busan

Class	Institute	No.
Government Administration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9
	Jeju Maritime Management Division	3
	South Regional Headquarter Korea Coast Guard	6
	YeongNam SeaGrant	8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11
		Busan Fishing Village	
		Fisheries Science Museum	6
Educational Institutions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3
		Busan Institute of Science Education	12
		Korea Maritime University	8
		Pukyung National University	11
		Fisheries HRD Center	11
		Busan Jin Girls' Middle School	2
Research Agency		Marine Environment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3
Industrial Institutions		Sea Explorer of Korea	14
		Sea Power League	8
		Busan Aquarium	9

Table 1은 2011년도 부산지역에서 산·학·연·정 기관별로 실시한 124개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3 해양교육 현황분석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교육은 매년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부산지역 각 기관에서 운영한 해양교육 프로그램 124개를 해양교육의 분야, 방식, 교육시기, 교육대상 등으로 나누어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1) 해양교육 분야별 분석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교육 분야를 ‘해양문화교육’, ‘해양과학교육’, ‘해양생물교육’, ‘해안생태·지질교육’, ‘해양환경교육’, ‘해양레포츠교육’ 및 ‘해양산업교육’의 7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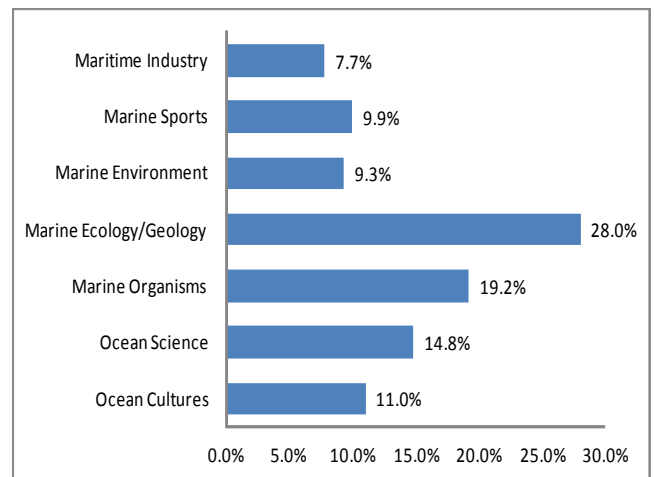


Fig. 1 Status of Sectoral Maritime Education Programs

Fig.1은 부산지역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 분야별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해안생태·지질교육이 2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생물교육(19.2%), 해양문화교육(11%), 해양레포츠교육(9.9%), 해양환경(9.3%), 해양산업교육(7.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안생태·지질교육’은 현장에서의 탐구활동, 실내실험 및 이론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분야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의 교육만족도와 참여도가 높다. ‘해양생물 및 해양과학교육’은 주로 교육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피교육자가 방문하거나 교육자가 교육대상이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실내이론과 실험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비된 교육기자재와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현장보다는 실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교육의 선택도가 높다.

‘해양문화교육’은 각 기관별로 특별 기념행사의 형태로 글짓기, 사생대회, 해양역사 유적지 탐방, 독도문화 교육의 일시적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레포츠교육’은 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강이나 바다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계절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의 수가 적다. ‘해양산업교육’은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수산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부이다. 해운과 수산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해양교육 방식별 분석

해양교육 시행방식은 크게 실내이론교육, 실내실험교육, 현장탐방교육, 현장체험교육, 기관행사교육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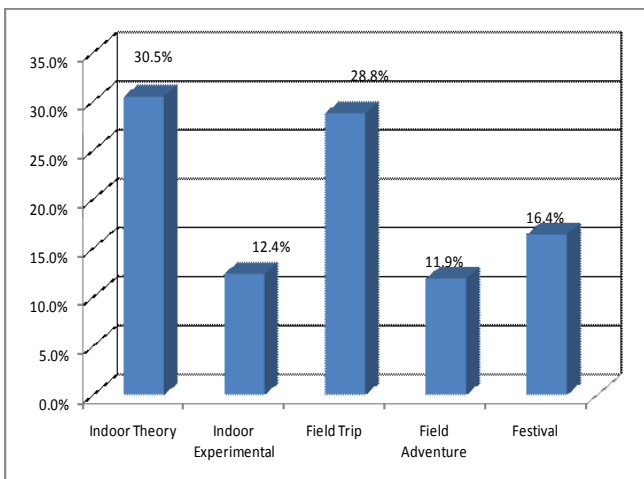


Fig. 2 Status of Methodological Maritime Education Programs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 해양교육은 실내이론교육(30.5%)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탐방교육(28.8%), 기관행사교육(16.4%), 실내실험교육(12.4%), 현장체

험교육(1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실내이론교육’과 ‘실내실험교육’과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탐방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이 42.9%와 40.7%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가 높은 ‘현장체험교육’방식의 프로그램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교육효과가 높지 않은 ‘실내이론교육’과 ‘기관행사교육’의 비중이 46.9%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교육효과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해양교육 시기별 분석

해양교육 시행기관은 교육의 내용, 예산, 목적, 대상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양교육 시행시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하고, ‘연중수시’, ‘매월’, ‘매주’로 분류하여 경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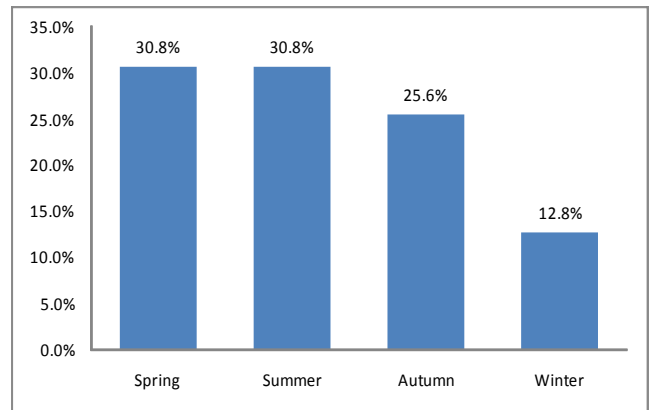


Fig. 3 Status of Seasonal Maritime Education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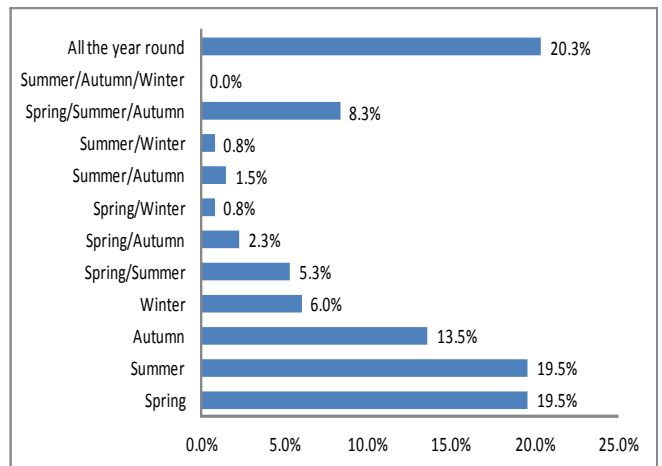


Fig. 4 Status of Periodical Maritime Education Programs

Fig. 4은 계절을 근간으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연중수시’, ‘매월’ 및 ‘매주’와 같이 해양교육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은 전체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만 개설되는 교육이 전체 약 58.5%를 차

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교육보다는 단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 1~2회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50.7%를 차지하여 교육의 효과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해양교육 대상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일반인 및 전체대상 등 총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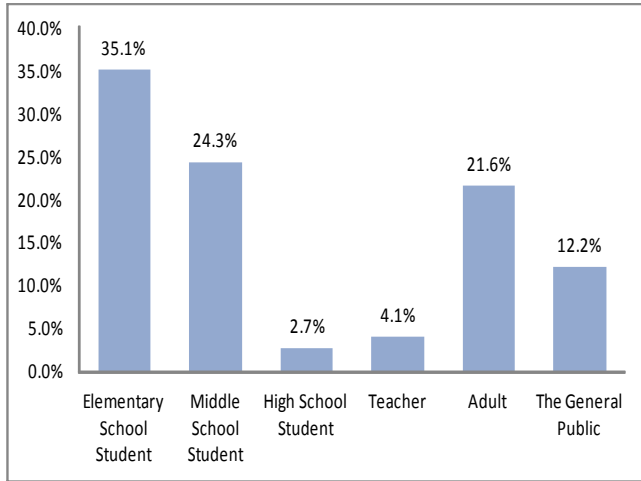


Fig. 5 Status of Maritime Education Programs by Educational Target

Fig.5와 같이 부산지역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의 35.1%가 초등학생이며, 중학생(24.3%), 고등학생(2.7%), 교사(4.1%), 일반인(21.6%),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2.2%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은 대학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양은 미래식량, 에너지, 광물과 같은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교육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에서 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교육의 내용과 심화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해양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문제점

3.1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획일화

해양교육은 앞서 설명한 대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해양교육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교육과 연계하여 해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

지만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은 Fig.1 해양교육 분야별 분석에서와 같이 해양산업관련 교육은 전체 7.7%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도 국립수산물학원에서 시행하는 수산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항만승선견학 등과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해운산업과 수산산업은 부산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에 미래해운과 수산산업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해양교육에서 이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산지역의 사회적, 지리적, 산업차원의 여건을 이용한 해양에 대한 기본지식부터 다양한 문화, 탐방체험을 통해 진보된 교육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일간 문제가 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지명에 중요성에 관해서도 해양교육 영역이면서 지리교육, 사회교육에 포괄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해양교육 영역을 확대하여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해양수산부, 2006).

3.2 해양교육 운영방식의 한계

부산지역 해양교육 방식은 Fig.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실내이론교육’과 ‘실내실험교육’은 약 42.9%를 차지하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탐방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은 약 40.7%로 나타나 실내교육과 현장교육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높은 ‘현장체험교육’방식의 프로그램은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실내이론교육’과 ‘기관행사’의 비중이 약 4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대중들에게 해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부족하고, 현장체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효과가 높은 ‘현장체험교육’과 ‘현장탐방교육’의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3.3 해양교육 체계미비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중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봄’과 ‘여름’이 각각 약 30.8%로 해양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겨울’은 약 12.8%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야외활동이 필요한 해양교육의 특성상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프로그램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Fig.4는 ‘연중수시’, ‘매월’ 및 ‘매주’와 같이 해양교육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은 전체 약 20.3%를 차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만 개설되는 교육이 전체 약 4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 해양교육은 장기적 교육보다는 단기적 교육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 1~2회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약 50.7%를 차지하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해양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겨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부산지역의 해양교육의 대상자들은 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전체 약 35.1%를 차지하는 비율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등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히 초·중·고 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교육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내용과 심화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3.4 해양교육 실시 전문 인력 부족

해양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식량, 에너지, 광물과 같은 자원의 보고이자 국내 미래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해양교육은 이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해운선진국들이 해양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재의 부산지역 해양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교사)의 전문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기관별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춘 주제의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일반 학교의 타 전공 교사가 일정교육을 이수하여 해양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해양교육의 심화 학습이나 다양성을 교육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5 해양교육 실시기관 간의 연계부족

2011년 부산지역에서 실시된 해양교육 프로그램은 17개 기관에서 총 124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갯벌체험과 같은 현장체험교육 및 탐방교육은 영남씨그랜드대학사업단, 부산시청, 수산인력개발센터, 부산진여중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승선체험 역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실시기관은 단순 선상견학 뿐 아니라 연안 항해에 참여하는 기관이 중복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교육 실시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상호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코스를 마련하여 해양교육 실시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교육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활성화 방안

4.1 해양교육모듈 개발

1) 해양교육 모듈 개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해양교육 운영체계는 예산, 강사진 구성 및 교육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쉽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양교육 내용을 모듈화 하여 교육내용의 정형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모듈화를 통해 기관의 교육여건이 변하더라도 정형화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해양교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평가 및 보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생의 연령 및 학력, 교육기간, 교육시기, 교육장소, 교육기자재 및 시설 등에 따라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모듈에 맞는 강사진의 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해양교육코스 개발

해양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관성이 높은 교육내용들이 주기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교육의 취지, 학습목표에 맞도록 배열하고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설정된 교육목표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교육모듈이 조합된 해양교육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중심이 되는 교육모듈을 선택하고, 핵심교육모듈과 연관성이 높고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교육모듈을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모듈을 하나의 교육기관이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모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교육코스를 담당한다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해양교육센터 설립

현재 부산지역의 해양교육기관은 자체 예산과 강사진,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양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교육기관별 담당교육의 내용, 교육생의 수, 교육시기, 투입예산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들 중에서 어느 한 기관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교육코스별로 조정기관을 따로 둔다면 여러 코스에 중복되어 활동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 관련 중앙부처, 유관기관 및 해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총괄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부산 지역 전체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견인할 수 있고, 해양교육 내용의 지정, 교육일정 조정, 정보교류 등의 단순 총괄업무 뿐만 아니라 해양교육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총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4.3 정규교육과정 편성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에 따르면, 사회교육이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규교육을 제외한 사설교육시설,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대부분은 성적위주 및 대학입시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규해양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운영계획서를 선별하여 시·도 교육청에 제공, 이를 기준으

로 지방교육청에서 해양교육시범학교를 공모, 지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지역 해양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교육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정규해양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각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협의하여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예산 등에 대해 결정하여 전문교재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강국으로, 세계 8위의 해운국가이다. 이 중 부산시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을 소유하고 있는 해양도시이다. 하지만 부산시민의 해양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양에 대한 단순히 관심이나 지식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해양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해양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한 해양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규교육은 성적 위주, 입시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수립되어 있어 대부분의 해양교육은 사회교육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양교육 시행기관에 따라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기관별 성격에 따라 교육내용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전문 강사진의 부족으로 인하여 균형적이지 못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거나 일회성의 페스티벌 형식의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대상자들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교육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저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 총 17개의 기관에서 124개의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해양교육 분야별, 방식별, 시기별, 교육대상자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산지역의 해양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획일화

둘째, 해양교육 운영방식의 한계

셋째, 해양교육 체계 미비

넷째, 해양교육 실시 전문 인력 부족

마지막으로, 해양교육 실시기관간의 연계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해양교육모듈의 개발, 기존의 획일화되어 있는 해양교육을 표준화하여 교육시행기관의 예산, 강사진 변화 등의 외부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교육을 모듈화 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모듈화 된 교육을 하나의 교육목표를 설정하

여 교육목표에 맞는 핵심교육모듈을 지정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가적인 교육모듈을 선정하여 해양교육코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셋째, 해양교육센터의 설립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을 교육기관별 담당교육의 내용, 교육생의 수, 교육시기, 투입예산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총괄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규교육과정으로 해양교육을 편성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대부분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내실 있는 해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성귀, 홍장원, 이윤정, 이슬기(2010), 해양교육 계획수립을 위한 기반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김혜민(2010), 한국해양교육의 특징과 발전방안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5-16.
- [3] 부산광역시해양자연사박물관(2011), 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 자료집
- [4] 이길래(2000), 21세기 수해양교육의 새로운 지표설정에 의한 발전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12(2).
- [5] 윤옥경(2006),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역사
- [6] 해양수산부(2006), 차기교육과정 개정관련 해양교육 강화에 관한 연구

원고접수일 : 2012년 7월 2일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14일

원고채택일 : 2012년 8월 14일